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9. 28.(목)

日 도쿄전력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계획 발표

- 일본 도쿄전력은 9.28.(목)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하였다.
- 도쿄전력에 따르면, 10.3.(화)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·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(1,500Bq/L)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, 10.5.(목)부터 약 17일에 걸쳐 K4-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,800m³를 방류할 예정이다.
- 도쿄전력은 9.21.(목), 국제원자력기구(IAEA)는 9.22.(금)에,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-C 탱크에서 6.26.(월)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,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 - * (삼중수소 농도) 14만Bq/L (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)
(삼중수소 이외 측정·확인용 29개 핵종 고시 농도비 총합) 0.21~0.25
(자체 확인 39개 핵종) 유의미한 농도값은 확인되지 않음
- 한편, 도쿄전력은 8.24.(목)부터 9.11.(월)까지 19일간 이루어진 오염수 1차 방류는 배출기준치를 만족하였으며,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 - * 도쿄전력은 8.22.(화) 발표를 통해, 2024년 3월까지 약 31,200m³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표하였으며, 이후 8.24.(목)~9.11.(월) 간 약 7,800m³의 오염수 방류를 완료

- 우리 정부는 오염수 2차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.
-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실시간 제공하는 데이터,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,
- 한-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(IKFIM)에 따라, 우리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파견, 화상회의 및 서면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도 IAEA 검증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·점검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임현진 (044-200-2379)
		담당자	사무관	김량기 (044-200-2374)
<공동>	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	책임자	과 장	정경화 (02-2100-7794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수 (02-2100-7831)
<공동>	원안위 방재환경과	책임자	과 장	심은정 (02-397-7351)
		담당자	서기관	김상호 (02-397-7333)